

# 문헌정보학과의 교육현황과 발전 방향

권 기 원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1. 서 론

우 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문헌정보학의 시작을 국립 조선 도서관 학교가 설립된 1946년으로 볼 때 그 역사는 50여 년이 되며,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의 교육이 시작된 1957년으로 본다면 40여 년이 경과되었기에 문헌정보학은 학문적 성숙기에 이미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 시작된 것은 1956년 10월에 피바디 사범대학 교육사절단이 내한하여 1957년 한국 도서관계의 요청을 받아 연세대에 도서관학과를 신설하면서부터이다. 여기에서는 연세대 부설 도서관 현장에 있는 중견 직원의 교육에 치중함과 동시에

사서 교사의 교육도 진행하였다. 그 후 1959년에 이화여대, 1963년에 중앙대, 1964년에 성균관대 등 32개 대학 학부 과정에 도서관학과가 설치되었고, 대학원 석사 과정은 1957년에 연세대에 설치되었다가 중도에 모집이 중지된 후, 1959년에 이화여대, 1971년에 성균관대, 중앙대 등에 설치되었으며, 박사 과정은 1974년에 성균관대, 1980년에 연세대, 1983년에 중앙대 등에 설치되었다.

전문대학 과정은 1970년에 부산여자전문대학(당시 부산여자전문학교), 1972년에 숭의여자전문대학, 1974년에 계명대학교 한국사회사업대학 병설 전문대학 등에 설치되어 사서를 배출하여 왔다.

이 글에서는 195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문헌정보학 교육기관의 유형과

그 특성을 살펴보겠다. 또한 21세기를 준비하는 오늘의 도서관이 정보 기술과 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활용하는 커다란 변혁을 거쳐야만 생존의 터를 마련할 수 있기에, 이를 위해 문헌정보학을 교육하는 교육자와 도서관 현장의 관리자들이 하루 빨리 수동적이고 수구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정보화를 위한 도서관 전산화, 협력망 구축 및 멀티미디어화를 위한 상호 보완적 노력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교육의 방향과 그 전망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문헌정보학 교육기관의 특성과 문제점

문헌정보학 교육기관은 정규 교육기관과 그 기관 내에 부설된 단기 교육기관 등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기관들의 교육과정 변천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정규 교육기관

문헌정보학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다루어지는 교육기관은 2년제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및 2년제 석사 과정, 3년제 박사 과정의 대학원이 있다.

이들의 교육과정을 종합해 볼 때 1950년대의 문헌정보학 교육은 입문 분야, 어학 분야, 기술업무 분야, 참고 및 서지 분야, 경영 분야를 개설하였으며, 1960년대에 도큐멘테이션 과목이 연세대 대학원에서 개설되었는데 이 시기의 특기할 사항은 어학 분야 과목(영어, 일본어, 한문)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 각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에는 기술 분야, 참고 봉사 및

서지 분야, 입문 분야, 도서관 경영 분야, 정보학 분야, 어학 분야 등의 순으로 그 개설의 비중이 달라졌다.

1980년대 말에 와서는 전공 필수에 기술업무 분야, 입문 분야, 참고 및 서지 분야, 도서관 경영 등의 순으로 개설되었고, 전공 선택의 경우에는 기술업무 분야, 참고 및 서지 분야, 도서관 경영 분야, 어학 분야, 입문 분야, 정보시스템 분야 등의 순으로 개설되어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모두에서 기술 분야의 교과목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필수 과목으로 도서관 자동화론(도서관 전산화론 또는 도서관 기계화론)이 개설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각 대학 교육과정에 선택 과목으로 문서관리론, 정보사회론, 정보처리기술론, 이론정보학, 특수매체론, 계량서지학, 정보정책론, 정보시스템 분석, 도서관 조사통계론, 정보시스템 설계, 자동화처리실습, 전자매체론 등의 과목들이 신설되었다. 이는 정보학의 영역이 전통적인 문헌정보학에 도입되어 전 영역에 고르게 응용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2) 단기 교육기관

단기 교육기관의 유형으로는 국립 중앙도서관이 1946년부터 사서직의 강습과 1967년에 와서 교육기간이 1년인 교육 및 2개월 단기 교육을 실시하여 정사서와 준사서 자격을 수여하여 왔으나, 1987년 10월 도서관법의 개정으로 국립 중앙도서관은 재교육에 해당하는 연수에 전념하게 됨으로써 사서 양성 교육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대학내 단기 교육기관은 1965년에 성균관대에 부설되어 1995년으로 창설 30주년을 맞

은 한국 사서교육원과, 1990년에 계명대에 부설된 사서 교사 과정 및 준사서 과정이 있다.

단기 교육기관에서 사서 자격을 얻기 위하여 교육을 받는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전문대학 또는 학부에서 주제 배경을 갖춘 자들로 주제 전문가의 기능을 도서관 현장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일선 도서관에서 요구되고 있는 이 분야의 충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은 도서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사서 자격증이 없는 이들과, 다른 전공을 한 후 그 분야 주제 전문가로서 일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자격 취득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 3) 문제점

앞에서 열거한 교육기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의 자질 가운데 폭 넓은 교양과 봉사 정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교육목표로 설정한 학과가 비교적 소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에는 32개나 되는 문헌정보학과(일부 도서관학과)가 있으므로 모든 학과가 같은 목표 아래 같은 내용의 교육을 행하고 같은 자질을 지닌 졸업자를 배출할 것이 아니라, 각 학과가 특성화된 교육목표에 따라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들을 배출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문헌정보학과가 현재의 사회 상황과 21세기의 사회에서 주축이 되기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서 채용 제도상의 문제다. 전문직 교육에 필수적인 인력 수요에 대한 선행 연

구 없이 학과를 만들어 전문직 사서를 양산하게 된 것이 취업 문제를 야기한 근원적인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문헌정보학과 졸업생들의 직급에 따른 사서직 채용 기회가 매우 적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특히 국·공립 도서관의 채용 시험에서 하위직의 경우 문헌정보학의 과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모순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점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서관계(현장) 및 문헌정보학계의 공동 노력과 더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려가 또한 요구된다.

넷째, 문헌정보학과 졸업생에게 졸업과 동시에 사서자격증이 주어지는데, 이는 도서관 현장에서 실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현재 문헌정보학과와 교과목 중 상당 부분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정보처리 및 정보 검색에 관한 것이고, 최근에 와서 초고속 정보 통신망의 활용을 위한 시설이 가장 시급하며 문헌정보학의 존재 위기를 좌우할지도 모를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바, 시대적 추세에 맞게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도록 실습에 필요한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컴퓨터를 포함한 새로운 정보 기술에 접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현재 실습 기자재와 장비를 제대로 구비한 학과는 소수이고, 대부분의 경우 극소수의 기자재만을 갖추고 있어 강의나 설명으로는 불가능한 교과목들의 교육도 강의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한 학과에서 단독으로 모든 것을 구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므로 타학과와의 공동 사용을 시도하거나, 대학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는 조치를 우선 취해야 하고,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

할당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교수의 부족은 각 교수에게 할당되는 강의 시간의 가중을 야기하여 강의와 마찬가지로 교수 본연의 의무인 연구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교수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 이외의 타분야 강의를 맡게 되므로 문헌정보학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교수 방법도 학생의 토론이나 발표, 개인지도 등을 통하여 교과내용에 심도있게 접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오로지 강의에 의존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전문 영역의 선택 범위를 넓혀 주고, 적정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 분야의 강의에 치중하며, 다양한 교수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 3. 정보화 시대의 교육방향

1963년 도서관법이 제정된 지 24년이 되는 1987년에 도서관법이 개정되었다. 여기에는 도서관 발전위원회, 도서관 진흥기금, 국가 및 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운영비 부담, 도서관 정보 협력 방안과 표준번호 제도의 실시, 조세 감면 규정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상당히 전향적인 내용으로 그 기대가 자못 컸으나, 정부 부처 내에 도서관 행정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지 못하여 일관성 있는 도서관 정책은 물론 전국적인 정보 유통 관리 체제의 확립이 실제로 불가능하였다.

1990년 정부 행정조직 중에서 문화부 독립과 더불어 1991년 3월 8일 제정된 '도서관 진흥법'은 도서관의 지역 문화기관으로서의 기능 확립, 국·공립 도서관장의 사서 직화, 국립 중앙도서관의 기능 강화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를 토대로 도서관 정책과 도서관 행정업무가 문화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립 중앙도서관의 업무를 관할하게 되었고, 1993년 '책의 해'를 맞이하여 국민 독서 진흥 및 문고 활성화를 위하여 '94년 3월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다가올 21세기에는 국가의 경쟁력이 국가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강화되므로 선진 각국은 자국의 정보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의 정보력이란 국가 발전에 필요한 모든 학문 분야의 정보를 수집, 처리, 가공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가 장소, 시간, 정보 유형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지금까지의 도서관 개념을 뛰어 넘는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을 구축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정보력을 증대시키는 것만이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며 이는 도서관 자료의 공유와 교환을 통해서 가능하다. 전자 도서관(electronic library), 벽 없는 도서관(library without the wall), 디지털 도서관(digital library), 멀티미디어 도서관(multimedia library), 가상현실 도서관(virtual reality library) 등이 미래의 도서관 모형을 제시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국회 도서관은 디지털 도서관 구축을 위한 전략적 방향이라는 계획 아래 매년 100만 건의 문헌을 디지털화하여 미국 내의 모든 도서관이 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국회 도서관의 디지털화된 자료를 검색하여 원하는 정보를 전달받게 하는 대규모 가상 도서관의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프랑스는 국립 중앙도서관 주도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약 100만 권의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프랑스의 모든 지역에서 전자적 접근을 통한 정보 전달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의 학술정보 센터(NACSIS)는 일본에서 진행되는 전자 분야의 학술지 1종과 화학 분야의 학술지 3종에 수록된 논문의 전문을 디지털화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 새로운 도서관 개념에 기반한 도서관을 구축하려는 계획은 인쇄 매체로 되어 있는 도서관 자료의 디지털화가 그 핵심이다. 이를 대비하여 우리 교육 현장의 교육과정에도 이러한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문헌정보학회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5년 8월 19일~36일 일본 쓰쿠바에 있는 도서관 정보 대학에서 개최된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세미나'에 회장단이 참석하였으며, 1996년 9월 10일~14일 '96년 디지털 도서관 국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문헌정보학 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에 기여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부는 1994년 음성, 텍스트, 이미지, 동화상 등의 멀티미디어 형태의 다양한 정보를 국가의 정보화와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기반 구조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5년까지 초고속 정보 통신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고속 정보 통신망 아래에서의 원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도서관 구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국립 중앙도서관은 관내 소장 자료 50만 종의 목록에 관한 문자 정보와 국내 박사학위 논문 6천 종의 목차에 관한 문자

정보와 전문의 이미지 정보 중 문자 정보는 국립 중앙도서관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전문을 이미지로 입력한 화상 정보는 시디롬으로 제작하여 서버에 접속된 Juke-box에 탑재하여 초고속 정보 통신망에 접속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국립 중앙도서관은 이와 같이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 구축에 필요한 도서관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보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국가 전자도서관 구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이란 도서관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책상 위에 있는 워크 스테이션에서 국내의 도서관 자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서관 자료 및 상업적인 정보원에게까지 접근하여 원하는 정보의 전문을 전자적인 정보 전달에 의해 온라인으로 즉시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놓은 곳을 열린 도서관(open-library)이라 할 수 있다. 열린 도서관이 종합 문화 정보의 접근점 및 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이며, 정보 및 도서관의 이용 행태, 그리고 어떻게 디지털화 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가 다각도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화된 정보에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기법, 자연언어처리 등에 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인쇄 매체 중심의 도서관 자료 처리에 관한 방법에서 전자 매체 중심의 새로운 정보처리 방법, 즉 디지털화된 책이 전자매체로 생산되었을 때 문헌정보학의 교육 현장과 도서관 현장은 정보처리방법론을 매우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뿌리(확고한 기반) 위에 새로운 전자 매체 중심의 정보처리법을 조심스럽게 접목시켜야 문

현정보학이 이 땅 위에 존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적극적으로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 현장에 수용하여야 할 최대의 당면과제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대한 문헌정보학의 발전적인 방향은 문헌정보학 교육자들과 도서관 현장의 중견 간부들이 머리를 맞대며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연구를 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구축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교육과정의 변화를 조속히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네로(Gennaro)는 “정보 사업이 결코 도서관을 없앨 수는 없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고 했고, 케니(Kenney)는 “종이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종종 데이터베이스의 전자적 탐색에 대한 부산물은 있을 것이며, 이용자가 탐색 결과를 원한다면 인쇄물 형태로 만들 수 있다.”고 한 말의 내용을 의미있게 받아 들여야 한다. 도서관 사서는 정보 전문가로서 도서관 안팎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숙련된 기술이 더 부가된다는 점과, 많은 정보 전문가가 새로운 정보 기술의 도전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종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새로운 매체와 함께 미래를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 4. 결 론

21세기의 무한 경쟁 시대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였거나 전공하려는 이들은 도서관 소장자료 중 학술 정보의 디지털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문헌정보학 교육자와 도서관 현장의 중견 간부들의 관심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며, 또한 문헌정보학의 미래가 이들에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자의 끊임 없는 철저한 노력이 수반될 때 그 가능성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노력이 전통적인 문헌정보학의 확고한 뿌리(기반) 위에 형성될 때, 참으로 바람직한 문헌정보학의 미래가 도래할 수 있다. 이는 이론적인 뿌리와 철학적 성 있는 학문의 본질을 구명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문헌정보학의 이론적 접근은 정보의 본질을 파헤치고 그의 속성을 정형화 또는 계량화함으로써 정보가 활용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것의 가공된 모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 환경에 따른 특성을 살려 더욱 강력한 학문의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

유사한 기능을 하는 도서관과 데이터베이스를 일반인들이 같은 맥락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의 특성과 기능을 일반화시켜줌으로써 그 응용성이 도서관만이 아닌 모든 정보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여 문헌정보학의 새로운 교육 방향을 위한 연구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당면 과제이다. ▣

---

권기원/성균관대학교 도서관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도서관학개론』(공저), 『도서관 정보관리편람』(공저), 『학문, 어떻게 할 것인가-사회과학편』(공저) 등이 있고, “도서관 경영에 있어서 시스템 분석 기법 응용에 관한 연구”, “도서관 자료 보존에 관한 연구 : 대학도서관 도서관 자료를 중심으로”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